

여성운동의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

98 여성연대 한 판을 제안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려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 멕시코 치아바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 -

☺ 보내는 즐거움: 98 여성연대 한판 기획단 & 참가단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여성위원회(준),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서강대 성정치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 연대,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서울여대 날개달기,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아주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외국어대 황산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홍익대 여학생회, 들꽃모임, 들꽃모임,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학 협의회(먹고살기를 고민하는 여대생 모임),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적차이의 윤리 실현을 위한 살맛나는 세상)

● 받는 놀라움: 여성운동의 즐거움에 흠뻑 빠질 당신

1. 준비하는 글

96년 이학여대 대동제에서의 고대생 집단성폭력 사건에 공동 대응을 기점으로 하여 각 학교 여성운동단위 대표자로 구성된 '등골모임'이 만들어졌다.

97년 지난 96년 연대에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를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가 구성된다.

98년 IMF 구조조정 이후 더욱 종북하게 몰아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억압에 대하여 '살얼나는 세상',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 발족하다.

그리고 여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흐름이 전국 각지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다.

이것이 96년 이후 대학내 여성운동단위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흐름이다. 이전 여성운동단위들이 각개전투식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체를 조직하였다. 여성운동이 전체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만 간주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여성운동의 성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져 전체 운동의 보편적 성과물로써 발현·공유되어 세력화 하지 못하고, 여성운동 내의 성과물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자성 또한 지금의 현실을 말해준다.

지금 우리는 그간의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생성된 담론을 현실속에서 발현하기 위해, 그리고 운동세력 내에서의 여성운동자체의 세력화를 위해 연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임을 기반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며, 함께 '여성'이라는 부분에 착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운동의 시작은 여성을 정치화하는데 있다. 이것은 단지 여성을 운동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여성으로서 정치화 하고, 운동 패러다임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가들의 투쟁이 아닌, 여성의 집단적 정치화를 요구하고 남성적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과 여성적 방식의 운동에 대한 고민으로 그 지속적인 운동을 사고할 수 있다.

각 학교의 운동 단위들은 다양한 형태, 운동 방식, 학교 상황, 조직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연대'라는 단어를 붙이지도 않을 것이다. 서로간의 차이를 긍정하는 가운데 '연대'라는 의미가 더욱 그 뜻을 찾을 것이다.

연대를 통해 각 단위들은 서로간의 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하고, 전반적인 운동의 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단위들이 모여서 공신력을 획득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어 한 단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운동의 담론을 더욱 물화 시켜내면서 우리의 논의는 좀더 대중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 갈 것이다.

이제 그동안 각기 진행되었던 우리의 운동의 성과들을 하나로 모아낼 필요가 있다. 98년 현재 여성운동을 자리매김하면서 운동을 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기반으로 한 단위들의 연대 모색, 그리고 성폭력 근절과 같은 공통의 사안에 대한 사안적 연대 등 사회에 여성주의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다. 여성운동이 주제별로 독자적인 방향과 조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속에서 전국적인 여성운동단위들이 각자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또한 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연대 한 판에 대한 제안을 한다.

2. 여성연대 한 판의 목적

i)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전국적인 흐름으로!

성폭력은 여성을 가장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수단이며, 남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여성운동의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 성폭력의 공간은 우리의 일상공간이며, 대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보다 자유로운 일상을 위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현재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의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간 여성연대회의는 대학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각각의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며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남녀 권력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일련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본질적인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제안하고 학칙을 마련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던 것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해체시키고 여성주의적 관점의 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성폭력이 그 뿌리를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굳건히 내리고 있다고 할 때,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98년 하반기의 주요한 전략이다.

여성연대 한 판의 목적은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그리고 성차별 이데올로기 해체를 위한 전국적인 일련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재구성하고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속에서 하반기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공간으로 여성연대 한 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여성운동단위의 연대 속에서 여성운동의 주제를 전사회적 흐름으로!

대학내 진보진영의 대내적, 대외적 혼란 속에서 기존의 여대생 운동 단위들은 대표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운동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부장적 강령과 구조를 비판 없이 답습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리고 여성운동의 성장 속에서 새로운 여성운동 연대체가 구성되어 왔고 여성운동의 주제와 방향은 다양화되고 있다. 들꽃·물꽃 모임, 서울경기지역·전북지역 여성연대회의, 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 살맛나는 세상, 그밖의 다양한 여성운동 단위들의 발족과 활동은 여성운동의 변화, 발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성운동단위의 흐름과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여성운동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운동들의 연대 지점의 모색 속에서 여성운동이 전사회적 과장을 가져나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여성연대 한 판의 목적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연대체가 각각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 속에서 연대의 지점을 모색하여 여성운동의 주제를 전사회적 흐름으로 만드는 것이다.

iii) 여성주의적 문화의 공유를 통해 대안적 문화의 구성을!

여성주의라는 언어는 그 특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문화 생성에 선도적으로 나섰던 공간은 '또 하나의 문화'와 '들꽃모임' 등이다. 그리고 이는 97년 페미니즘 캠프 등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 발전되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한 전략을 가져가는 여성주의적 문화에서,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다른 방식의 문화읽기에 대한 시도는 권력중심의 문화담론에 저항하는 담론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운동의 주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문화생성은 여성운동단위 안에서도 권력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관계 및 운동조직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소통되지 못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해 발전적 실험이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다르다'라는 것이 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여성연대 한 판의 목적은 여성주의적 문화 생성의 성과를 체험하고 새로운 문화의 모색을 통해 여성주의라는 언어를 구체화시키는 데에 있다. 끊임없는 여성주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실험의 장으로 여성연대 한 판이 구성되어야 한다.

3. 여성연대 한 판 일정

-일정: 8월 21~23일(금,토,일) 2박 3일

-장소: 동국대

21일 (금)	22일(토)	23일(일)
	8:30~ 9:30 기상, 아침식사	아침식사 8:30~ 9:30
	여성운동 대토론회 1차 10:00~1:00	워크샵 작은 토론회
	점심식사 1:00~2:00	점심식사
1시 모이기 친해지기 마당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의 무기로!」	낮 문화관 2:00~6:00 :자신이 경험한 통쾌한일 콘테스트, 철인경기, 그림공동작업	총화마당 (한판 정리) 2:00~5:00 「NO AND! YES AND!」
저녁식사 6:00~7:00	저녁식사 6:00~7:00	
성폭력학칙 전체 토론회 7:00~10:50	여성운동 대토론회 2차 7:00 ~9:30	
취침 11:00~	밤샘 문화관 10:00~ :분장하기, 출판, 영화관..	

4. 여성연대 한 판 일정 소개

21일

1) 친해지기 마당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의 무기로!」

: 21일 1시 ~ 6시

i) 조 정하기, 도착 확인 :

1시 ~ 3시 : 도착/ 자료집과 명찰을 받고/ 명단 체크를 하고/

“가상 인물 완성하기” 표 중 마음에 드는 칸을 채우고/

3시까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각 모임별 게시판이나 부스를 설치/

저녁에 진행될 성폭력학칙 토론회 자료집을 미리 읽고 이해를 돕기 위한 공부방이 있다.

?? 가상인물 완성하기란 :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 인물에게 이름, 나이, 특징, 성격, 직업, 취미, 캠프에 오게된 동기, 올해의 소원, 여성 운동을 하게된 계기, 생긴 모습 등을 하나씩 부여하여 자기 조의 마스코트가 될 인물을 완성하는 것.

이때 사람들은 한 인물을 선택하여 캐릭터 사향을 채울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을 참고로 하여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스스로는 일관성 있는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
작가, 창녀,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 비서, 수녀, 모델,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위치에 서있는 여성상을 상정해보고,

그 다양성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업.

?? 성폭력학칙 공부방이란 : 성폭력학칙 토론회에서의 이해와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토론회 들어가기에 앞서 발제문(연대회의 자료집)을 읽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여 앉을 수 있는 독립된 장소에서 준 발제자인 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상주하여 모두와의 간단한 소규모 세미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한 판 장소에 도착 체크인 후 아올아리(여성연대 한 판 자활단)의 안내를 받아 공부방에 참여할 수 있다. -> 연대회의 자료집을 소화한다

ii) 캠프 선언식 (3시~4시20분)

- 캠프 개막 선언
- 아올아리들의 준비된 노래와 율동
- 각모임의 인상깊은 3분 소개(이번 캠프에 바라는 점, 여성 운동관에 바라는 점, 자기 팀의 특색, 올해 계획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 참가단위별로 준비해 온다!!!
- 조발표, 숙소 배치, 일정 소개

iii) 조별 모임 (4시 40~ 5시 40분)

- 각자의 소개, 인사
- 각 조를 아우르고 보살필 조장(아우람)을 뽑고
- 각자의 생애에서 가장 통쾌했던 경험들을 이야기 :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 조별 통쾌한 이야기 콘테스트에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운동관의 가부장적 동지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하철의 성추행법을 어떻게 혼내주었는지, 담배피는데 시비거는 놈들에게 어떻게 일갈을 날렸는지... 실제 경험들을 들어보는 자리)

2) 성폭력학칙 전체 토론회

: 21일 7:00 ~ 10:50

i) 토론회의 위상과 목적

지난 5월,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열었다. 작년부터 연대회의에서 고민되어진 성폭력 관련 학칙과 그 필요성, 앞으로의 운동방향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 보기 위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그간 큰 운동성을 발휘할 만큼까지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에 그 이해조차 파급되지 못했던 연대회의의 학칙사업을 알려 내고 그 안에서 중간평가해 보는 기회였다. 현재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위 사람들 이외에도 학내성폭력과 그 근절, 그리고 학내여성운동으로서의 본 학칙제정운동에 관심있는 여러 포지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모였고 허용된 4시간가량 관련한 정보들이 공유되었지만 1차 공청회로서의 당면과제에 충실한 만큼, 있는 그대로의 수위예의 이해 정도에 그쳤다는 등의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여성연대 한.판의 첫날에 자리하는 토론회는, 연대회의와 각 학교에서 보다 심화되고 구체화된 그 이후의 고민까지를 총화해 내고 더욱 발전시키는 자리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청회와 같은 위상은 갖지 않도록, 연대회의와 각 학교 학칙사업의 주체로서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의 논의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편으로 한다. 7월에 있는 연대회의의 학칙관련 세미나 결과물과 각 학교 운동상황의 발제에 이은 간단한 질의응답 후 토론회가 진행될 것이고, 그 논의는 나아가 가을학기에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있을 성폭력근절주간(가)의 기획을 함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큰 토론회」 (21일 오후 7:00 - 10:50)

-여성연대 한.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폭력학칙 전체토론회의 대상으로 하되, 본 판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실무자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토론회 개최, 연대회의 소개

② 발제 (60분, 7:00 - 8:00)

-발제문(연대회의 자료집)에 실린 순서대로 성폭력의 개념, 학칙의 원칙과 필요성, 학칙의 내용(1차 학칙안, 사법연수생 검토 이후의 수정안), 학칙운동의 방향성이 그 내용이다. 모든 발제팀의 내용이 토론시에는 종합되므로 발제를 전부 마친 후 토론이 있게 된다.

발 제 내 용	발 제 자	발제시간
성폭력의 개념	X	20분
학칙의 원칙, 필요성	달팽이	10분
학칙의 내용	쌀	15분
학칙 운동의 방향성	난이, 상날	15분

-학칙 제정 운동의 방향성 팀 : 현재 각 학교에서의 학칙제정운동상황과 그 결과가 나타나 자료로 이용될 만한 경우의 발제 가 연대회의 자료집의 발제문들을 근거로 한 발제 외에 덧붙는다. => 학교 주도적인 사례, 학교가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사 례, 상담소와 위원회가 구성된 사례, 학칙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 여학생부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례, 이미 제정한 사례, 학내의 상담소 사례 등의 관련글이 참조된다.

③ 휴식 (10분, 8:00 - 8:10)

-전체판:

a. 작은토론판 분리를 설명하고 희망자를 받는다. 지극히 소수인 경우 작은토론판 폐기를 결정한다.

β. 토론 진행시 이야기가 흩어지거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논의할 사항을 참가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받는다. 휴식시간에는 모두가 단순질문지와 발의지를 작성하여 진행보조자들에게 구분하여 수합시키고, 전체사회자와 함께 발제팀별로 분류하여 발제 자들에게 전달한다.

-작은토론판 : 작은토론판 희망자들과 작은토론판 공간으로 이동한다. 관련 기획은 참조한다.

④ 단순질의응답 (20분, 8:10 - 8:30)

-공무방 등에서 모두가 발제문을 소화했다는 전제로, 발제시 빠진 것 등 공유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단순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되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소요시간을 줄인다.

⑤ 토론 (90분, 8:30 - 10:00, 최대 12:00까지 ; 토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논의할 것이 있으면 총화 후에)

-원탁 토론의 형식이므로 토론자들을 40명 정도로 예상할 때,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2개의 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황을 보아 전체사회자가 결정한다. 전체사회자가 발의를 정리하여 발표한 후, 그냥 진행할 경우 전체사회자가, 나눌 경우 각 팀별사회 자들이 토론 과정을 조절하면서 진행한다. 각 토론팀은 공통된 문제제기로 토론을 진행하고, 사회자는 순서를 조정하고 시간을 체크하여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토론의 마감은 팀이 있을 경우 팀에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경우 토론판 전체적으로 하며, 전체총화 후에도 팀별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나 전체총화 전 토론자가 개인적으로 먼저 토론장을 빠져나가는 일은 되도록 없도록 주의시킨다.

⑥ 총화 (60분, 10:00 - 10:50)

-두 팀으로 나뉜 경우에는 각 팀의 사회자가 팀 총화를 한 후, 토론을 마무리하는 전체적인 총화는 전체 사회자가 한다.

-토론의 총화를 한 후에 9월 성폭력 주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기조잡기서부터 사업기획안 공유(예를 들어 학교별 공 청회, 신촌이나 관악 앞에서의 공동 집회, 기념물(뱃지, T 등)의 공동 제작과 판매, 학생회와 노조 등과의 접촉 등), 실무자들 끼리의 다음 약속 잡기까지 담보될 수 있으면 한다.

-전북지역 연대회의를 비롯하여 연대할 수 있고 관심있는 분야가 있는 단위연대체거나 단위, 개인들과 학칙사업이나 연대회의 와의 기회를 모색한다.

iii) 「작은 토론판」 (21일 오후 7:00 - 10:50)

-발제 시간을 큰 토론회와 같이 한 후, 따로 모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 응답과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충분한 이해를 얻은 다음에 큰 토론판과는 독립된 다른 토론을 다른 공간에서 진행한다. 사례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 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칙의 필요성과 원칙까지 다루는 것이 편리하겠으나 나름의 논의로 토론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언어 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 발제 -> 간단한 질의응답 -> 그 뒤 큰 토론판과는 분리

1) 여성운동 대토론회

토론회1 22일 10시 ~ 1시

토론회2 22일 7시 ~ 9시 30분

i) 들어가며....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려는가?”

경제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면서 우리는 전사회적인 보수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파고 들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여성운동이 거뒀던 많은 성과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운동이 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사회적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여성운동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러나 어느 운동이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여학생운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전체'운동에 단순히 복무하는 운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이론을 가지고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여성운동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들을 해왔다. 그리고 그 어느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 좌표를 점검할 때이다. 자,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주장하는 '독자성'이 무엇이며, 실천적으로 올바른 길 - 물론 이것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혹시 우리는 단일한 여성운동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에, 다른 운동 세력으로부터 받던 비난 - 비판이 아닌!! - 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차이'와 '연대'를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예전 여성운동가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자매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동안 서로에 대한 비판력을 억제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다른 동지들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이야말로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추동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여성운동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적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문제들 - 이슈와의 문제, 조직적 체계의 문제, 대내/외적 연대의 문제들을 언어적인 악순환에서 끄집어 내 한번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앞으로 여성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이번 여성운동 대토론회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ii) 토론회 1 :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 내용성에 대한 문제 (10시 ~ 1시)

☞ 여성운동이 어떠한 것들을 주되게 담론화하였으며, 다른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① 정세분석 - '대학'이라는 공간과 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

- 대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에 조명해보자.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위치는 많이 변하고 있다. 이 속에서 여대생들은 사회적으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가? 가부장적 권력이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회계층적 위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건으로 작용하는가?

②대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와 그간 운동의 성과들

- 90년대 중반부터 대학내 여성운동판은 급격히 바뀌었다. 현재 들꽃/들꽃모임, 여성연대회의, 살맛나는 세상, 여대생먹고살기대책위가 결성/활동 중이며, 이전에 있었던 전연대협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여성운동이 조직화되는 방식은 주로 어떠한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현재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과 여성노동이다. 이것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었는가? 왜 현 시기 우리에게 중요하며 학내 여성운동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 빈민여성문제나 정신대 또는 기지촌의 문제는 소규모적으로 진행되면서 학내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③대학내 여성운동의 현 주소

ㄱ) 대학의 여성운동과의 관계 ㄴ) 다른 운동과의 관계

대학내 여성운동(여성 사회단체와의 관계)으로서 또는 대학내 여성운동(대학내 다른 운동과의 관계)으로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조명해보자. 연대를 해야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상과 실천적 방향에는 의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연대'가 지나치게 추상화된 논리로만 논의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현재의 사회적인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전제' 운동관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하는 운동관은 즉 우리 운동과 다른 운동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④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성 - 연대의 원칙과 조건, 그리고 실천의 전략들....

진행방식 : 발제자 4명 정도가 위의 질문들에 모두 답변할 수 있는 발제문을 쓴다. 사전에 각자의 내용은 충분히 공유가 되어 서로의 의견차이가 들어날 수 있도록 발제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발제문도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제제안 : 고려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먹고살기대책위, 살맛나는 세상

iii) 토론회2 : 여성운동의 방법론 및 조직체계에 대하여 (오후 7시 ~ 9시 30분)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총여학생회의 유의미성/무의미성에 대한 논쟁으로 체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불어졌으며 기존 운동권의 중앙집권제를 벗어난 여성주의적 운동 방식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와 한계점들이 들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재생산의 문제가 많은 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현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현 주소는?

①여성주의적 조직론은 무엇인가?

몇 해 전부터 학생회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으며 또한 총여학생회도 그 화살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학생회의 간접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총여학생회의 대안적 형태로서 위원회 내지는 자치단체들의 연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논쟁은 여전히 유효한가?

②여성주의적 조직의 내부체계에 대한 문제

여성주의적 조직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내부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운영(의사결정) 부위와 집행 부위가 확고히 분리된 관료주의적 체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체계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체계에서 축적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 혹은 '기존 체계에 반대하는 것 = 무체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③연대체 또는 '중앙'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여기에서 '중앙'조직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여학생운동의 최초의 전국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전여대협을 비롯해 현재에는 여성연대회의, 살맛, 먹살, 들꽃/돌꽃 등의 연대모임들이 많다. 연대체로서 이들이 여태까지 수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중앙' 조직으로서 연대모임이 역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 다른 학생정치조직들은 의장과 중앙집행부를 갖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권위가 갖는 강제성과 자발성이 빠질 수 있는 무책임 사이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④대표자회의의 의미성

잠시 추진되다가 해소가 된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평가해보자. 그 의미성들을 아직도 유효한가? 대표자회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성주의적 조직의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면서 토론회를 마쳤으면 한다.

진행방식 : ①②③은 각 학교 상황마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분 발제에 가장 적당한 학교/개인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한 학교가 한 소주제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부분(다른 학교/개인의 발제)에 대해서는 논평을 해준다. ④에 대해서는 모든 발제자들이 답변한다.

발제제안 : 연세대 총여학생회, 관악여성연대모임, 여성연대회의,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2) 낮 문화관

: 22일 2시 ~ 6시

i) 자신이 경험한 통쾌한 일 콘테스트 (2시 ~ 2시 반)

첫날 친해지기 판에서 한 통쾌한 일 이야기하기의 연속. 각 조별로 한 명씩 가장 통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경연을 벌이고 서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통쾌한 경험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가장 멋진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별도의 상품이 수여됨. 상품은 비밀.

ii) 철인경기 (오후 2시 반-3시 반)

각 조별로 5종목의 경기를 하며 한 종목 당 10분-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조별 대항이며 가장 많이 이긴 조에게 역시 상품이 주어질 예정. 역시 상품은 비밀이다.

① 줄넘기 (흔히들 꼬마야 꼬마야라고들 한다.)

방식은 알다시피 노래를 부르면서 각 조원들이 발을 맞추어서 줄을 뛰어넘는 것이다. 10분 동안 어느 팀이 더 많이 넘었는가가 승패의 기준이다. 팀워크 핵심인 게임이다.

② 지하철 다리벨리기

지하철에서 다리를 꼭 벌리고 앉은 아저씨들을 보는 것은 흔한 경험일 터. 그런 아저씨들과 싸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긴 의자(둘 이상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 기준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이기는 게임. 사실상 다리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것만으로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경우 눈싸움을 해서 판가름 한다.

③ 3:3 농구

말 그대로 농구. 각조에서 3명씩 팀을 짜서 농구하기. 10분을 해봤자 00 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유투를 한다.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없다. 남자들이 하는 흔히 스포츠라는 것에 겁내지 않기 위한 게임이다.

③-1 물풍선 놀이

농구에서 지는 팀이 표적이 되어 서 있고 이기는 팀이 물풍선을 던져서 호탕하게 노는 거다.

④ 물총싸움

1ℓ병에 물을 채워 만든 물총을 사용한다. 각 조별로 한명씩 색소가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맞은 색소량에 따라 승패를 가른다.

⑤ 개백다귀

개백다귀의 그림 안에 한 조가 들어가서 한 귀퉁이에서 다른 귀퉁이로 이동한 후 다시 처음의 귀퉁이로 오는 것이 게임의 목표이다. 이 와중에 다른 조가 그림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끌어내면 밖의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글로는 잘 안풀리는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iii) 쉬는 시간 (3시 반-5시)

이 시간에 한쪽에서는 먹고살기 대책위원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 가능.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후의 토론회를 위하여 휴식.

iv) 그림공동작업 (5시 -6시)

3조 정도를 한 팀으로 하고 큰 천에다 공동으로 그림을 그린다. 주제는 각 팀마다 여성연대 한판, 성폭력 학칙제정, 여성주의.

3) 밤문화제

: 22일 대토론회 끝나고 곧장- 밤새

i) 분장하기

모두가 분장을 하되 각 조별로 가장 훌륭하게 분장을 한 사람을 한명씩 선출한다. 그 후 전체 모인 판에서 콘테스트를 거쳐 한명을 선정한다. 선물은 3천원 상당의 카레오이 시리즈 전집.

<분장의 주제>

- 가장 중성적으로
- 남자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모습으로
- 여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 그의 환경, 통일, 등 맘대로 주제를 정해서.
- 그냥 하고싶은 대로

ii) 춤판.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추기.

iii) 영화판.

좋은 영화를 배경으로 놓고 그 영화의 o.s.t를 잔다. 영화-보이즈 온 더 사이드, 파니핑크, 연어알, 바그다드카페, 그랑부르
중간 중간 빠른 음악을 넣어서 일종의 씹까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3일

1) 워크샵

: 23일 10시 ~ 1시

i) 목표

대학에서 여성운동을 함에 있어 힘든 부분중 하나는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하는데에도 버거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쉽게 지치기 일쑤이다. 활동을 하면서 항상 아쉬워 하게 되는 노하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 하고자 함이 이 워크샵의 목표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 일 필요가 있다.

ii) 워크샵 하나. 자아정체성 Program (by 호그리)

①자아 정체성 프로그램

Safety Zone - 등근원을 Safety Zone으로 설정하고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표시하며 Training에 들어간다.

정체성 놀이-등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자신들이 평소에 알고 싶은 것들을 말한 뒤 박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고 박수를 쳐준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에 자신들의 아픈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고, 그것을 박수를 통해서 해소한다.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글쓰기 마라톤-자신이 평소에 가장 크게 느꼈던 분노에 대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글을 쓰고 그중에 가장 분노스러운 글

을 골라서 당사자가 나오게 한 뒤 진행자중에 한명에게 분노의 상황을 표현하게 한후 분노의 상황을 해소하게 한다. 이것은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야.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알면 상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구.

② 일하면서의 어려움 나누기

페미니스트로 커밍아웃한 다음에 여자친구들이건, 남자친구들이건 만나면 종종 불편해지지 않아? 여자친구들은 너 그렇게 사는 건 좋지만 너무 불편하고 귀찮잖아라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너를 피하고, 너도 역시 살면서 여성으로 힘들고 짜증나는게 있는데 친구들은 너한테 무작정 기대려고만 하고 말야. 이런 때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

같이 활동하는 애가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너와 함께 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라든지. 평소에 자신이 여성운동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해결점들을 찾아보고 말야.

③마무리

자원나누기-자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러한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칭찬하기-남자애들이 우리의 몸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 말고 우리들이 우리들을 칭찬해보는 거야. 긍정적 여성성을 찾아 가는 길이기도 하지.

Safety Zone을 다시 표시하기- 워크샷을 마친후의 자신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표시하고 마무리한다.

iii) 워크샷 들. 실무 Training Workshop(by 쌤)

① 실무 Training Workshop이라니...(똥난 말이지)

단위에서 여성운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풀어보자는 거지...첫째는 Training 준비자들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둘째는 이 판에 모인인들이 함께 자기 단위 자체에 존재하거나 그 안에서의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하고 함께 해결점을 모색 해 보는 자리라는게지.

노하우라고 하니까 대단한 비법처럼 들리는군. 어쩌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일수도 있는데, 소소하게 어떤 일을 벌일 때, 기획에서 선전, 진행까지에 관한 실무내용과 마인드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해야하나. '자, 우리 다음달에 여성연대한판이라는 행사를 하자.' 라고 결정한 다음 각자가 해야하는 일들에 관한 것이지. 대충 다치면 다 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작할때마다 약간은 당황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을 정리해보고 함께 이야기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도록 하자구.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이나 서로에 대한 예의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 특히, 학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지원금이라던가, 총학생회와의 관계를 푸는 것. 학교 안에서 흘러가는 행사들과 총어나 여성위원회가 하는 행사들의 관계, 부딪침,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의 대처, 학교당국과의 관계등등... 물론 각 학교마다 그리고 매시기마다 다른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어떻게들 풀고 사는지, 가장 파워풀한 전략은 무엇인지 '작전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쌤'이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말이지. '게릴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것이야. 보통 지금까지 여성주의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때, 학생회를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라는 공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서 과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애. 졸업을 했거나 학생이더라도 학생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돈과 사람과 장소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매뉴얼로 만들었으면 해. 물론 아직까지는 아주 양상한 매뉴얼인데, 서로 공유하고 실험하면서 버전업을 시킬 수 있을게야.

② Workshop Program을 살짝 소개하자면

a. 학내활동 효과적으로 하기.

- 사람만들기-내부에 함께 있을 제한된 사람과 외부에 많은 사람 만들기
- 학내 타 단위, 행사와 관계맺기
- 계속 잡고있어야 할 일(장기적인 일)과 그 시기에 잠깐 할 일 조율하기

* 학교당국과의 협상

* 효과적인 행사기획과 마인드

: 기획 마인드 - 기획서 쓰기, 체계 만들기, 시테크, 재테크

재테크 - 지원금, 외부 스폰받기, 여타 스폰의 형태들

실행 - 선전, 자료집, 인원동원, 콘티작성

선전 - 사진작업, 홍보(공간내, 언론타기), 사후담론 만들기, 사람납기기

β. 게릴라로 살기

* 이슈파이팅 : 담론지형, 실재지형의 결합

* 담론은 언론으로 통신으로 : 보도자료 만들기, Event 만들기

* 실재지형 : 연대할 단위 찾기, 공식요구방법, 법에 대한 이해

* Event 실무

γ. 서로서로 도움주기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이야기하기. 서로의 해법찾기.

2) 신규여성실업자에 관한 작은 토론회

: 23일 10시 ~ 1시

-참가단 행사판으로 전북지역 연대회의(건)에서 준비하는 작은 토론회.

3) 총화마당 「 NO END! YES AND !」

: 23일 2시 ~ 5시

-사회자 진행으로 각자의 소감 이야기 하기

(사회자의 준비된 질문과 답변자의 준비된 대답이 오가는 토크쇼의 형태)

WHO? 조별 1명, 학칙 토론 사회자, 학칙 문화제 준비팀 중 1~2인(문화제 홍보 및 각오 밝히기)

여성 운동 토론팀에서 1~2명, 워크샐 팀, 캠프 준비팀...

-광고 : 각 단위 행사 예정 소개, 사업 홍보 등..

-마무리 멘트와 박수...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며

그밖에

1) 자보전

: 행사 기간 내내 가능

i) 자보전 내용

-참가단위 소개

: 참가하는 각 단위에서 단위소개 자보 써오거나, 단위소개 문안 기획단으로 전달하여 단위 소개 자보가 나간다.

-행사 관련 내용

: 여성연대 한 판 행사 관련 내용 소개, 참가단 준비 행사

행사 취지 및 목적을 쉽게 알려내는 일

-주제별 내용

: 참가단위가 중심으로 다룬 주제 관련 내용

ii) 일정

-현재 먹살, 살맛, 전북 연대회의, 서울, 경기지역 연대회의, 시립대 확정

-17일까지 자보전 설치할 단위 확정 및 확인

-19~20일까지 장소 배치 확정, 알림

-21일까지 설치

2) Booth 설치

: 행사 기간 내내 가능

i) Booth 내용

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

: 자료집, 기념품 등등 판매

② 단위알림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

: 자료집 배포나 소규모 행사 진행

③ 기지촌 여성을 위한 부스

: 수혜에 피해를 당한 기지촌 언니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의류, 침구류를 받는다.

각 단위에서 가능한 물품들을 모아서 함께 전달.

ii) 일정

-17일까지 부스를 설치할 단위 확정 및 확인

-19~20일까지 장소 배치 확정, 알림

-21일까지 설치

5. 여성연대 한 판 참가 안내

1) 참가신청

여성연대 한 판 에 참여하고 싶은 단위나 개인은 여성연대 한 판 기획단 내 참가단 관리팀에 연락

참가단 관리팀 : 나우) absinthe

전화) 360-3548 (이화 여성위원회)

참가신청 후 신한은행 계좌 356-02-186308 로 참가비를 입금한다.

참가비는 참가 전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후에 참가단 관리팀에서 행사에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계속 나갈 것이다.

* 미리 입금이 불가피할 경우 행사 당일날 동국대로 직접 와서 참가비를 지불하고 참가단으로 등록 가능하다.

2) 참가비

여성연대 한 판 참가비 : 20,000원

참가비 내 역 :

-2박 3일 숙식비 (숙박은 동국대 내에서, 식사 총 6끼가 제공되며 교내식당과 도시락으로)

-2권의 자료집

-여성연대 한 판 기념 T

-행사 참가비

☎ 여성연대 한 판 문의

- 통신 : 나우) 연세총여, absinthe

하이텔) 연세총여

- 전화 : 260-3614 (동국대학교 여성특위)

361-3645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360-3548 (이화여대 여성위원회)